

어머니의 학업성취압력과 아동의 학업스트레스 및 내재화 문제와의 관계에서 아동의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지지의 조절 효과

박 서 연 정 영 숙*
부산대학교 심리학과

초등학교 5·6학년 남녀 아동 379명을 대상으로 어머니의 학업성취압력이 아동의 학업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학업스트레스가 아동의 내재화 문제에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았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아동의 자아탄력성과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가 조절 효과를 보이는지 회귀분석을 통해 알아보았다. 성별에 따른 회귀분석 결과, 남아들의 경우 어머니의 학업성취압력이 높을수록 학업스트레스가 높게 보고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지지의 조절 효과가 나타났다. 여아들의 경우에도 어머니의 학업성취압력이 높을수록 학업스트레스가 높게 보고되었지만,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지지의 조절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남아와 여아 모두 학업스트레스는 아동의 내재화 문제를 증가시켰는데, 이 과정에서 남아들은 사회적 지지의 조절 효과가 나타난 반면에, 여아들은 자아탄력성의 조절 효과가 나타남으로써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여주었다. 즉, 남아에게서는 어머니의 성취압력으로 인해 학업스트레스를 느끼고 그로 인해 내재화 문제가 생기는 과정에서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지지 둘 다가 도움이 되는 반면, 여아의 경우에는 자아탄력성만이 부분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학업성취압력, 학업스트레스, 내재화 문제, 자아탄력성, 사회적 지지

초등학교 시기의 주요 발달 과업 중 하나는 다 양한 학습 과제를 해결하여 성취감을 느끼며 근면 성을 획득하는 것이다(Erikson, 1963). 그러나 부모 의 지나친 성취압력이나 과도한 학업 부담은 오히 려 아동에게 좌절감이나 열등감을 초래할 수 있다 (황미섭, 2000).

* 교신저자: 정영숙, E-mail: yschong@pusan.ac.kr

우리나라 초등학생들이 가장 많이 겪고 있는 스트레스가 학업관련 스트레스로 확인되었는데(정성인, 1998; 추정옥, 2000; 한미현, 1996), 이는 우리나라 초등학교 학생의 사교육 참여율(87.9%)이 중학생과 고등학생 보다 더 높다는 사실(통계청, 2008)이나, 초등학생들의 사교육 시간이(주당 평균 7.19시간) 일반 고등학생들의 시간보다 더 많은 것(한국교육개발원, 2004)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광주 모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이 성적비관으로 자살한 사건(한겨레신문, 2008, 10, 29)은 초등학생들이 느끼는 학업 부담이 얼마나 큰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 할 것이다.

우리나라 학생들의 겪는 학업스트레스의 주요 원천 중의 하나가 부모의 학업성취압력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는 자녀들의 학업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주요 원천으로서 부모의 학업성취압력에 관해 고찰한 후, 학업스트레스가 아동의 심리적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기로 하겠다.

아동의 학업스트레스원으로서 부모의 학업성취압력

학업성취압력이란 부모가 자녀에 대하여 가지는 교육적 관심, 성취 및 역할 기대 등에 대해서 아동이 지각한 압력이다(강영철, 2003; 이명숙, 1990). 대체로 학업성취압력의 지각 정도에서 남아들이 여아들보다 부모의 학업성취압력을 더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임종석, 2000; 정지선, 2007).

학업성취압력에 관한 선행 연구들은 긍정적인 기능과 부정적인 기능의 서로 상반된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먼저 학업성취압력의 긍정적 기능을 보고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부모의 높은 학업성취압력은 자녀의 성취동기와 자기효능감 향상에

도움이 되었으며(구현경, 2008; 박영신, 김의철, 정갑순, 2004; Baker & Stevenson, 1986; Yonezawa, 2000), 학업성적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류연자, 1994; 박영신, 김의철, 정갑순, 2004; Smith, Beaulieu, & Seraphine, 1995). 이는 부모의 학업성취압력이 높을수록 아동들이 부모의 기대에 도달하고자 하여 성취동기가 높아지고, 또한 실제로 열심히 공부하여 성적이 향상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성취압력이 자녀의 성취동기를 높이는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부모의 학업성취압력은 여러 가지 부정적 기능을 야기할 수 있다. 우선 많은 연구들에서 부모의 학업성취압력을 높게 지각할수록 아동들이 보고하는 스트레스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박경희, 2008; 류연자, 1994; 최경숙, 2007; Ang & Huan, 2006; Misra, Crist, & Burant, 2003), 부모의 학업성취압력이 아동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주요 원천 중의 하나임을 입증해준다.

부모의 학업성취압력은 자녀들의 스트레스 지각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적응도 야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학업성취압력이 높을수록 아동들의 학습, 시험 및 능력에 대한 성취 불안이 높아지고(김경옥, 1992; 임종석, 2000), 부정적인 정서도 높았다(박지영, 2007; 최경숙, 2007). 또한 부모로부터 오는 외적 압력은 아동의 수행뿐만 아니라 목표, 가치, 열망 및 흥미를 약화시킬 수 있다(Levine, 2006). 또한 높은 학업성취압력은 학습된 무력감(손낙주, 최보가, 1996)과 우울, 불안 및 신체 증상과 관련이 있었다(Hardy, 2003). 높은 학업성취압력은 원만하지 않은 교우관계, 높은 공격성(탁경문, 1992), 학교생활의 부적응과도 관련이 있었다(정지선, 2007). 이상의 연구들은 부모의 지나친 학업성취압력은 아동의 스트레스를 높이는 주요 원천이 될 수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학업스트레스와 관련하여 보다 심각한 점은 중·고등학교 시기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학업스트레스가 최근에는 그 연령이 점차 낮아져 초등학교 시기에도 학업 관련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하는 추세라는 것이다(정성인, 1998; 추정옥, 2000; 한미현, 1996; 황혜정, 2006).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어머니의 과도한 학업성취압력은 아동의 높은 스트레스 수준과 관련이 있었다(홍은자, 김희진, 2002). 우리나라 부모들은 자녀들을 대리자아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부모들이 갖는 지나친 관심과 걱정은 오히려 아동들에게 부담을 주게 되어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경험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정성인, 1998).

학업스트레스와 심리적 부적응

학업스트레스란 학교 학업 및 방과 후 학업으로 인해 아동이 느끼는 정신적 부담과 긴장, 근심, 초조함과 같은 불편한 심리 상태를 지칭한다(오미향, 1994). 학업스트레스는 학업성적의 저조(Keogh, Bond, & Flaxman, 2007), 우울과 불안 및 신체 질환을 포함하는 다양한 부정적인 건강 문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Barrera & Baca, 1990; Compas, Orosion, & Grant, 1993; Erina, Wendy, & Seth, 2005). 또한 과도한 학업스트레스가 지속되면 학습된 무력감을 일으킬 수 있으며(박성희, 2006; 이경남, 1999), 심지어 자살 생각이나 자살 충동을 초래할 수도 있다(문경숙, 2006; Ang & Huan, 2006; Levine, 2006; Liu & Tein, 2005).

아동 후기는 청소년기로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과도기적 시기로 적응상의 문제가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시기이다. 아동기의 심리적 부적응은 크게 외현화 문제와 내재화 문제로 구분되는데, 내재화 문

제는 자신의 내적 갈등이나 고통을 억제함으로써 야기되는 정서적 문제와 관련 증상들을 지칭한다(한미현, 1996; Achenbach, 1991). 내재화 문제는 남아들보다 여아들에게 더욱 빈번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오경자, 이혜련, 1990; Crijnen, Achenbach, & Verhulst, 1997; Horwitz & White, 1987).

그런데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모든 사람들이 내재화 문제를 보이는 것은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스트레스의 영향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내재화 문제를 더 많이 겪을 수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스트레스 상황을 잘 극복하고 적응적인 삶을 살아간다(유은애, 2008). 여기서는 스트레스 중재 요인으로서 자아탄력성과 부모의 사회적 지지의 역할을 살펴보기로 한다.

학업스트레스와 심리적 부적응의 완화 요인으로서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지지

자아탄력성이란 개인이 처한 상황에 효율적으로 적응하기 위해 자아통제의 수준을 적절하게 변화시키는 자아의 동기 조절 능력과 인지적 능력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Block & Block, 1980; Block & Kremen, 1996). 일반적으로 자아탄력성이 높은 사람들은 보다 긍정적인 정서를 보이며 자신감도 더 높아 심리적으로 잘 적응하는 반면, 자아탄력성이 낮은 사람들은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했을 때 경직되고 집요한 태도나 산만한 행동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Block & Kremen, 1996).

자아탄력성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자아탄력성은 아동의 심리적 적응과정에서 보호요인으로 작용하여 우울이나 불안으로 나타나는 심리적 부적응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은애, 2008). 시험스트레스가 높은 상황에서, 자아탄력성이 높은 아동들은 그렇지 않은 아동들보다 시

험스트레스를 낮게 지각하였고, 신체증상도 더 적게 경험하였다(김교현, 권선중, 심미영, 2005). 또한 자아탄력적인 아동들은 외향적이고, 친화적이며 성실할 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으며 자신의 경험에 대해 개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구형모, 황순택, 김지혜, 2001). 특히 자아탄력성이 높은 아동들은 전반적으로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이 높으며 긍정적인 자아상과 정체성에 대해 보다 명확하게 인식하여, 낯설거나 위협한 상황에서도 융통성을 발휘하고 충동성을 조절하여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Klohn, 1996).

사회적 지지에 대한 정의는 학자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타인과의 관계에서 얻을 수 있는 사랑이나 인정, 정보, 물질 등의 긍정적 자원을 의미한다(Cohen & Hoberman, 1983). 아동에게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는 의미 있는 타인에는 부모, 형제, 친구, 교사 등이 있다(DeRosier & Kupersmidt, 1991; Furman & Buhrmester, 1985). 중요한 타인으로부터의 사회적 지지는 스트레스의 발생을 예방하고 스트레스 상황에서 개인의 심리적 적응에 도움을 주는 반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사회적 지지가 부족하면 심리적 부적응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백경애, 1997; Cohen & Wills, 1985; Mitchell, 1983).

아동에게 사회적 지지를 제공해주는 사람 중에서 특히 부모는 애정, 신뢰, 가치감 증진 등을 제공해주는 중요한 사람이다(백경애, 1997; 윤정진, 정옥분, 1997; DeRosier & Kupersmidt, 1991). 따라서 가족의 지지가 높은 아동은 적응을 잘 하며(Cowen, Pedro-Carroll, & Alpert-Gillis, 1990; Quamma & Greenberg, 1994), 어머니로부터 충분한 지지를 경험한 아동은 높은 학업성취를 보인다(Woods, 1972). 특히 부모의 애정, 칭찬, 관심 등과 같은 긍정적인 지원은 아동이 스트레스를 받는 생

활사건에 직면했을 때, 심리적 부적응을 일으키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기능을 한다(한미현, 1996). 반면에 정서적 지지를 포함하여 부모의 지지가 부족하거나 부모의 사랑이 조건적인 경우, 아동들은 부적응적인 행동을 보이게 된다(Harter, Marold, Whitesell, & Cobbs, 1996).

아동의 성장과정에서 부모, 특히 어머니는 아이에게 학업성취압력을 가하기도 하지만, 다양한 사회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아동을 보호하는 역할도 한다. 본 연구에서 어머니의 학업성취압력으로 인한 내재화 문제를 다루면서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를 완화 요인으로 다루는 것에는 어머니가 지닌 이러한 이중적 측면에 대한 고려가 포함되어 있다. 어머니는 아동에게 필요한 물질과 사랑을 제공하는 사람인 동시에 아동의 성취에 강력한 압력을 가할 수 있는 스트레스원임을 부인하기란 매우 어렵다.

연구 목적 및 연구 문제

성취압력이나 학업스트레스와 관련된 선행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자녀의 학업수행 및 성취에 관한 부모의 지나친 학업성취압력은 아동에게 학업스트레스를 야기하며, 증가된 학업스트레스는 여러 가지 심리적 부적응을 야기할 수 있음을 시사해준다. 본 연구는 선행 연구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부모의 성취압력이 아동에게 학업스트레스가 되고, 학업스트레스는 내재화 문제와 같은 심리적 부적응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심리적 보호요인으로서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지지가 성취압력으로 인한 스트레스 지각 완화에 도움이 되는지, 또는 스트레스로 인한 심리적 부적응 완화에 도움이 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 을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학업성취압력, 학업스트레스 및 내재화 문제 간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성별에 따라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지지가 학업성취압력으로 인한 학업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데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성별에 따라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지지가 학업스트레스로 인한 내재화 문제를 완화시키는데 차이가 있는가?

방 법

연구대상

부산시 A초등학교에 재학중인 5·6학년 학생 383명이 본 연구에 참여하였다. 이 중 응답이 불성실한 아동 4명을 제외한 379명의 자료가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최종 분석에는 남아아동 221명(5학년: 100명, 6학년 121명)과 여자아동 158명(5학년 75명, 6학년 83명)의 자료가 사용되었다.

본 연구에 참여한 아동들의 어머니 교육 정도를 보면, 대학교 졸업(전문대 포함) 이상이 64.1%, 고등학교 졸업 이하가 35.9%이었다. 어머니의 직업 유무를 보면, 취업모가 52.5%, 전업주부가 46.7%, 무응답이 0.8%이었다. 그리고 가정의 경제수준을 보통이라고 응답한 아동이 53.6%, 풍족한 편이라고 응답한 아동이 41.7%, 어려운 편이라고 응답한 아동이 4.2%, 무응답이 0.5%이었다.

측정도구

어머니의 학업성취압력 측정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학업성취압력은 강영철(2003)의 부모의 학업성취압력 지각 척도 중 어머

니의 학업성취압력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김기정(1984)의 부모양육태도 검사에 포함된 학업성취압력 관련 문항과 김경옥(1992)의 학업성취압력 검사지를 수정·보완한 척도이다. 본 연구에 사용된 어머니 학업성취압력 척도는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어머니 학업성취압력 문항의 신뢰도(Cronbach's α)는 .86이었다.

아동의 학업스트레스 측정

아동이 지각하는 학업스트레스 정도는 박성희(2006)의 학교학업스트레스와 과외학업스트레스 두 가지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총 28문항으로, 각 문항은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측정된 아동의 학업스트레스 문항의 신뢰도(Cronbach's α)는 .92이었다.

아동의 내재화 문제 측정

아동의 내재화 문제를 측정하기 위해 권오균(1996)의 문제행동지각척도 중 내재화 문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여러 선행 척도를 수정 보완하여 만든 것으로, 본 연구에 사용된 내재화 척도에는 열등감, 무력감, 불안, 그리고 우울의 4개 하위영역이 포함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내재화 척도는 네 개 영역에서 각각 6문항으로 구성되어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아동의 내재화 문제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는 .72이었다.

아동의 자아탄력성 측정

아동의 자아탄력성은 유성경과 심혜원(2002)의 자아-적응 유연성 척도(Ego-Resiliency Scale)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Block과 Kremen(1996)이

개발한 자아탄력성 척도를 번안한 뒤 수정·보완한 척도이다. 본 연구에 사용된 자아탄력성 척도는 총 14문항으로, 각 문항은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아탄력성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는 .94이었다.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 측정

아동이 어머니로부터 받고 있는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기 위해 김승미(1998)의 사회적 지지 척도 중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원래 Dubow와 Ulman(1989)의 연구에서 개발된 SSAS(the Social Appraisal Scale)와 SAB(Scale of Available Behavior)를 기초로 박지원(1985)이 만든 척도를 후에 윤혜정(1993)이 수정·보완하여 만든 것이다. 본 연구에 사용된 척도는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측정된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는 .81이었다.

결 과

주요 변인에서의 남녀 아동의 차이

남아와 여아가 지각하는 어머니의 학업성취압력과 학업스트레스, 아동의 내재화 문제, 자아탄력성 및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 정도의 평균이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아가 여아에 비해 어머니로부터의 학업성취압력을 더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377) = 3.12, p < .01$). 학업성취압력 이외의 변인에서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남아와 여아가 보고한 전체 학업스트레스 정도에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연구에 사용된 주요 변인에서의 남녀 아동의 평균과 표준편차

변 인	남아 (N=221)	여아 (N=158)
어머니의 학업성취압력	46.37 (11.24)	42.55 (12.44)
학업스트레스	54.57 (16.16)	54.56 (17.74)
내재화 문제	37.34 (12.34)	39.50 (14.03)
자아탄력성	40.48 (7.79)	41.91 (7.04)
사회적 지지	96.66 (20.41)	96.95 (19.49)

[$t(377) = .004, ns$]. 또한 남녀 아동이 보이는 전체 내재화 문제 [$t(377) = -1.589, ns$], 자아탄력성 정도 [$t(377) = -1.833, ns$], 그리고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 정도에서도 [$t(377) = -.139, ns$] 성차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학업성취압력이 학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서 남녀 아동의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지지의 조절 효과

학업성취압력이 학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가 성별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기 위해, 남녀 자료를 구분하여 학업성취압력과 자아탄력성, 사회적 지지를 독립 변인으로 하고 학업스트레스를 종속 변인으로 하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2 참조). 그런데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상호작용을 분석할 경우 독립변인들과 상호작용항 간의 공선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Aiken과 West(1991)

의 센터링기법(centering)을 사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먼저, 학업성취압력과 자아탄력성이 학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남아와 여아 모두 학업성취압력과 자아탄력성의 주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아와 여아 모두 학업성취압력이 높을수록 아동이 보고한 학업스트레스가 높았다(각각 $\beta=.422, p<.001$; $\beta=.577, p<.001$). 그리고 남아와 여아 모두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아동이 보고한 학업스트레스는 낮았다(각각 $\beta=-.209, p<.01$; $\beta=-.155, p<.05$).

학업성취압력으로 인한 학업스트레스가 증가되는 상황에서 자아탄력성의 중재 기능을 확인하는 한 가지 분석은 학업성취압력과 자아탄력성 변인 간에 상호작용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아탄력성의 조절 효과는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남아들의 경우에는 학업성취압력과 자아탄력성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였지만($\beta=-.146, p<.05$), 여아들의 경우에는 학업스트레스에 대한 학업성취압력과 자아탄력성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beta=-.038, ns$).

이는 학업성취압력을 높게 지각할 때, 남아들은 자아탄력적일수록 학업스트레스를 덜 경험하는 반면, 여아들은 자아탄력성의 영향을 덜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에는 학업성취압력으로 인한 학업스트레스 지각에서의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의 조절 효과를 살펴보기로 하자. 먼저, 남아와 여아 모두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가 많다고 보고할수록 아동이 느끼는 학업스트레스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각각 $\beta=-.352, p<.001$; $\beta=-.274, p<.001$). 그리고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회적 지지 역시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다. 남아들의 경우에는 학업성취압력과 사회적 지지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였지만($\beta=-.120, p<.05$), 여아들의 경우에는 학업스트레스에 대한 학업성취압력과 사회적 지지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beta=-.098, ns$). 이는 학업성취압력을 높게 지각할 때, 남아들은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가 많을수록 학업스트레스를 덜 경험하는 반면, 여아들은 사회적 지지의 영향을 덜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2. 남녀 아동의 학업스트레스에 대한 어머니의 학업성취압력과 자아탄력성, 사회적 지지의 위계적 회귀분석

		모형	β	t	R^2	ΔR^2			모형	β	t	R^2	ΔR^2
남 아	1	학업성취압력(A)	.422	7.066***			여 아	1	학업성취압력(A)	.577	9.034***		
		자아탄력성(B)	-.209	-3.496**	.224				자아탄력성(B)	-.155	-2.428*	.386	
	2	학업성취압력(A)	.418	7.000***				2	학업성취압력(A)	.570	8.793***		
		자아탄력성(B)	-.223	-3.766***					자아탄력성(B)	-.151	-2.344*		
		A × B	-.146	-2.455*	.245	.021			A × B	-.038	.503	.387	.001
남 아	1	학업성취압력(A)	.403	7.119***			여 아	1	학업성취압력(A)	.488	7.293***		
		사회적 지지(C)	-.352	-6.214***	.304				사회적 지지(C)	-.274	-4.090***	.424	
	2	학업성취압력(A)	.387	6.842***				2	학업성취압력(A)	.490	7.344***		
		사회적 지지(C)	-.348	-6.197***					사회적 지지(C)	-.301	-4.367***		
		A × C	-.120	-2.130*	.318	.014			A × C	-.098	1.543	.433	.009

* $p<.05$, ** $p<.01$, *** $p<.001$

표 3. 남녀 아동의 내재화 문제에 대한 학업스트레스와 자아탄력성, 사회적 지지의 위계적 회귀분석

남					여				
모형	β	t	R^2	ΔR^2	모형	β	t	R^2	ΔR^2
1	학업스트레스(A)	.337	5.569***		1	학업스트레스(A)	.425	6.375***	
2	자아탄력성(B)	-.288	-4.752***	.238	2	자아탄력성(B)	-.325	-4.871***	.355
3	학업스트레스(A)	.329	5.414***		3	학업스트레스(A)	.466	6.911***	
4	자아탄력성(B)	-.293	-4.836***		4	자아탄력성(B)	-.359	-5.376***	
5	A × B	-.072	-1.206	.243 .005	5	A × B	-.173	-2.565*	.381 .026
1	학업스트레스(A)	.264	4.221***		1	학업스트레스(A)	.334	4.553***	
2	사회적 지지(B)	-.360	-5.757***	.270	2	사회적 지지(B)	-.361	-4.932***	.357
3	학업스트레스(A)	.240	3.937***		3	학업스트레스(A)	.341	4.656***	
4	사회적 지지(B)	-.299	-4.743***		4	사회적 지지(B)	-.331	-4.359***	
5	A × B	-.220	-3.696***	.314 .044	5	A × B	-.099	-1.477	.366 .009

* $p < .05$, *** $p < .001$

학업스트레스가 아동의 내재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에서 남녀 아동의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지지의 조절 효과

학업스트레스가 내재화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지지 효과가 성별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보기 위해, 남녀 자료를 구분하여 학업스트레스와 자아탄력성, 사회적 지지를 독립 변인으로 하고 내재화 문제를 종속 변인으로 하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표 3에 제시하였다. 표 3에 제시된 결과도 Aiken과 West(1991)의 센터링기법(centering)을 사용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이다.

표 3을 보면, 남아와 여아 모두 학업스트레스와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내재화 문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아와 여아 모두 학업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아동의 내재화 문제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각각 $\beta = .337, p < .001$; $\beta = .425, p < .001$), 남아와 여아 모두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내재화 문제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각각 $\beta = -.288, p < .001$; $\beta = -.325, p < .001$).

그런데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아탄력성의 조절 효과는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이번에는 여아들의 경우에는 학업스트레스와 자아탄력성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였지만($\beta = -.173, p < .05$), 남아들의 경우에는 내재화 문제에 대한 학업스트레스와 자아탄력성의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beta = -.072, ns$). 이는 학업스트레스가 높을 때, 여아들은 자아탄력적일수록 내재화 문제를 덜 보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에는 학업스트레스로 인한 내재화 문제 발생에서의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 역할을 살펴보겠다. 남아와 여아 모두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가 많다고 보고할수록 내재화 문제를 덜 보고하였다(각각 $\beta = -.360, p < .001$; $\beta = -.361, p < .001$). 그런데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회적 지지에서는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다. 남아들의 경우에는 학업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였지만($\beta = -.220, p < .001$), 여아들의 경우에는 내재화 문제에 대한 학업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beta = -.099, ns$). 이는 남아들은 학업스트레스 수준이 높을 때,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를 높게 지각할수록 내재화 문제를 덜 경험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2의 결과와 표 3의 결과는 학업성취압력으로 인한 학업스트레스 지각과 이로 인한 내재화 문제 발생 과정에서 성별에 따라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가 다르게 나타남을 보여주었다.

논 의

사회적으로 만연한 학벌주의와 입시위주의 교육 현실로 인하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갖는 교육적 관심이나 성취기대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부모의 학업성취압력이 아동의 성취동기와 학업성적 향상에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류연자, 1994; 박영신, 김의철, 정갑순, 2004; Smith, Beaulieu, & Seraphine, 1995; Yonezawa, 2000), 지나친 학업성취압력은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고,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를 유발하기도 한다(박경희, 2008; 탁경문, 1992; Hardy, 2003; Levine, 2006; Misra, Crist, & Burant, 2003).

학업성취압력을 높게 지각하더라도 학업스트레스를 그렇게 심하게 지각하지 않거나 내재화 문제를 덜 경험하는 것에는 스트레스에 대한 지각을 감소시키고 내재화 문제 발생을 완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조절변인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가 자녀의 주요 스트레스원이 되는 학업성취압력을 제공하는 사람이면서(정성인, 1998; 홍은자, 김희진, 2002), 동시에 다양한 사회적 지원을 제공하는(백경애, 1997; 윤정진, 정옥분, 1997; DeRosier & Kupersmidt, 1991) 서로 모순적인 다중 역할에 초점을 두고, 어머니의 학업성취압력으로 인한 내재화 문제를 다루면서 동시에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를 주요 완화 요인으로 다루었다.

자아탄력성은 여러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완화시

키고 적응력을 높이는 대표적인 개인 변인으로 간주되고 있기에(구형모, 황순택, 김지혜, 2001; 김교현, 권선중, 심미영, 2005; Klohnen, 1996), 본 연구에서도 잠정적인 스트레스 완화요인으로 아동이 지니고 있는 자아탄력성을 다루었다(Block & Block, 1980; Block & Kremen, 1996).

초등학생 5·6학년들을 대상으로, 어머니의 학업성취압력이 아동의 학업스트레스를 높이고, 높아진 학업스트레스가 아동의 내재화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아동의 자아탄력성과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가 완화요인으로서 효율적인 역할을 하는지 살펴본 결과, 다음의 주요 결과들을 얻을 수 있었다.

먼저, 어머니의 학업성취압력이 아동의 학업스트레스를 높이고, 학업스트레스가 내재화 문제를 유발하는 과정에서 아동의 자아탄력성과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의 완화 역할이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남아들의 경우에는 학업성취압력이 학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자아탄력성의 조절효과가 나타난 반면에, 여아들의 자아탄력성은 학업스트레스를 지각하는 과정보다는 학업스트레스 지각 후에 내재화 문제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조절효과가 나타났다. 즉, 남아들의 경우에는 학업성취압력을 높게 지각하는 경우 자아탄력성이 높으면 학업스트레스를 덜 경험하는 반면, 여아들은 학업스트레스 수준이 높을 경우에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내재화 문제를 덜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학업스트레스를 지각하는 과정이나 아니면 학업스트레스로 인한 내재화 문제 발생 과정이나에 따라 성차가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자아탄력성은 남아와 여아 모두에게서 학업성취압력으로 인한 스트레스 지각과 내재화 문제 발생을 완화시

킬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조절변인임을 보여줌으로써 심리적 보호요인으로서 자아탄력성의 중요성을 지지해주고 있다(김교현, 권선중, 심미영, 2005; 유은애, 2008; Block & Block, 1980; Klohnen, 1996).

자아탄력성과는 달리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 효과는 남아에게서는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고 내재화 문제를 완화시키는 주요 요인이 되지만 여아에게서는 스트레스 완화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아들은 학업성취압력으로 인한 학업 스트레스 지각 과정에서뿐만 아니라 학업스트레스가 내재화 문제를 발생하는 과정에서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가 완화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심리적 보호 요인으로서 사회적 지지의 중요성을 입증해주고 있다(Cowen, Pedro- Carroll, & Alpert-Gillis, 1990; Quamma & Greenberg, 1994). 반면에, 여아들에게서는 학업스트레스 지각과 내재화 문제 발생 과정 어느 과정에서도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로 인한 조절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요약하면, 어머니의 애정이나 관심 등과 같은 긍정적인 사회적 지지가 남자 아동들에게는 학업스트레스를 완화시키고 내재화 문제를 완화시켜주는 중요한 요인임이 드러났으나, 여자 아동들에게는 사회적 지지 효과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이런 차이는 여아들은 평소 동성인 어머니와 정서적인 친밀성을 형성하고 유지하며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Kaufman & Uhlenberg, 1998; Youniss & Smollar, 1985)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가 특별하게 더 요구되지 않을 수 있을 가능성을 짐작해본다. 이에 반하여, 남아들에게는 어머니가 취업한 경우 위축 행동과 같은 내재화 문제를 더 많이 보인다는 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이선희, 2007), 어머니의 애정이나 관심 등이 더욱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 결과 남아들은 여아들보다 어머니의 학업성취압력을 더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는데, 이런 결과는 선행 연구 결과와 일치하고 있다(임종석, 2000; 정지선, 2007). 본 연구에서 여아에게는 자아탄력성만이 조절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남아의 경우 학업성취압력이 학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지지 모두 조절효과가 나타난 것은 여아들보다 남아들이 실질적으로 학업성취압력을 더 높게 지각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완화요인들이 발휘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앞으로 스트레스나 내재화 문제에 대한 완화요인에 대해 보다 세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어머니는 자녀에게 적절한 성취압력을 부가하기에 앞서 자녀가 어머니로부터 관심과 애정을 충분히 받고 있다고 느낄 수 있도록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해준다.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가 있을 경우, 아동들은 학업스트레스를 덜 지각하게 되고, 또한 학업스트레스를 많이 느끼더라도 이로 인해 무력감, 열등감, 우울 등과 같은 내재화 문제를 덜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본 연구는 아동들이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했을 때,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개인 자원으로서 자아탄력성의 계발 및 향상이 필요함을 또다시 보여주고 있다(Block & Block, 1980; Block & Kremen, 1996).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에 대한 제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특정 지역에 속한 아동들만을 대상으로 연구하였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아동 전체로 일반화시키는데 어려움이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의 지적 능력과 학업성취도, 그리고 아동들이 속한 사회경제적 배경을 고려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학업성취압력,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 내재화 문제,

자아탄력성에 대해 자기보고식 질문지를 통한 자료에 의존하였다. 아동의 내재화 문제를 보다 객관적 행동 지표로서 측정할 수 있는 방법들이 보완되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우리나라 학생들에게서 학업스트레스는 초등학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면서 더 증가된다. 누적된 만성적 스트레스는 심리적 건강과 신체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Tennant, 2002). 따라서 우리나라 학생들에게 매우 중대한 학업스트레스에 관한 종단적 연구를 통해 누적된 학업스트레스가 미칠 수 있는 장기적인 영향에 대한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여러 가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 결과는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들이 지각하는 어머니의 학업성취압력으로 인한 학업스트레스와 학업스트레스로 야기될 수 있는 내재화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아동의 자아탄력성과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의 조절 효과를 보여줌으로써 아동의 학업스트레스와 내재화 문제에 대한 적절한 개입 방안을 모색하는 자료로 이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참 고 문 헌

- 강영철 (2003). 부모의 학업성취압력과 아동의 학업자 및 부모의 학업성취압력에 대한 태도와의 관계. 창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구현경 (2008). 어머니의 성취압력 및 정서적 지지가 남녀 청소년의 성취동기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구형모, 황순택, 김지혜 (2001). 자아탄력성 집단의 성격특질.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0(3), 569-581.
- 권오균 (1996). 아동의 문제행동에 대한 아동, 교사, 학부모의 지각과 아동의 적응과의 관계.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경옥 (1992). 부모의 성취압력이 학생의 정의적 행동특성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교현, 권선중, 심미영 (2005). 초등학생의 시험스트레스와 신체화 증상: 자아탄력성의 중재효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0(1), 113-126.
- 김기정 (1984). 학업성취와 지각된 양육태도가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승미 (1998). 초등학생과 중학생에서 사회적 지지와 스트레스가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류연자 (1994). 어머니의 학업성취압력과 아동의 스트레스와의 관계.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경숙 (2006). 학업스트레스가 청소년의 자살충동에 미치는 영향: 부모와 친구에 대한 애착의 매개효과. 아동학회지, 27(5), 143-157.
- 박경희 (2008).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기대 수준과 학업스트레스와의 관계: 스트레스 대처행동을 중재변인으로.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성희 (2006). 아동의 학교학업 스트레스 및 과외학업 스트레스와 무력감간의 관계.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영신, 김의철, 정갑순 (2004). 한국 청소년의 부모자녀관계와 성취에 대한 종단연구: 자기 효능감과 성취동기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0(3), 37-59.
- 박지영 (2007). 부모의 학업성취압력과 아동의 부모신뢰가 심리적 안녕감과 학교생활적응에 미

- 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지원 (1985). 사회적 지지 척도 개발을 위한 일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백경애 (1997). 초등학교 아동의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와의 관계.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손낙주, 최보가 (1996).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자기 평가가 학습된 무력감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4(3), 245-257.
- 오경자, 이혜련 (1990). 한국 아동 청소년의 문제 행동증후군 연구 1. 한국심리학회지:임상, 9(1), 33-55.
- 오미향 (1994). 중학생의 학업스트레스 요인 및 증상 분석과 그 감소를 위한 명상훈련의 효과.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성경, 심혜원 (2002). 적응 유연한 청소년들의 심리적 보호요소 탐색. 교육심리학회, 16(4), 189-206.
- 유은애 (2008). 초등학교 아동의 자아탄력성과 정서적 적응의 관계. 사회복지 학생연구논총, 1, 82-103.
- 윤정진, 정옥분 (1997). 아동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사회적 능력. 아동학회지, 18(2), 311-331.
- 윤혜정 (1993). 청소년의 일상적 스트레스와 사회관계망지지 지각.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경님 (1999). 아동의 학습된 무력감과 관련 변인간의 인과 관계: 아동의 자기 능력지각, 스트레스, 모의 양육태도를 중심으로. 한국생활과학회지, 8(2), 227-243.
- 이명숙 (1990). 시험불안과 지각된 부모의 성취압력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선희 (2007). 취업모의 직업만족도 및 양육행동과 남녀 아동의 문제행동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임종석 (2000). 부모의 학업성취압력과 아동의 성취불안 및 대처방식에 관한 연구.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성인 (1998). 아동의 사회적 지지에 따른 일상적 스트레스 및 적응행동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지선 (2007). 초등학교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성취압력과 자기효능감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경숙 (2007). 부모의 학업성취압력과 아동의 학업성취목표가 아동의 스트레스와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추정옥 (2000). 초등학교생의 스트레스 유형과 대처방식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탁경문 (1992). 지각된 성취압력이 성취동기와 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통계청 (2008). 주당 평균 사교육 시간 계층별 특성 분포.
- 한겨레신문 (2008). “엄마 세상 살기 싫어” 초등생 성적비관 자살. 10월 29일.
- 한국교육개발원 (2004). 사교육 실태 및 규모 조사.
- 한미현 (1996). 아동의 스트레스 및 사회적지지 지각의 행동문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홍은자, 김희진 (2002). 어머니의 성취압력, 학원, 학습지 이용이 유아의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이화교육논총, 12, 137-146.
- 황미섭 (2000). 가정환경에 따른 아동의 일상적 스트레스의 차이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황혜정 (2006).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스트레스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관한 연구. *초등교육연구*, 19(1), 193-216.
- Achenbach, T. M. (1991). *Manual for the children behavior checklist 4-18, and 1991 profile*. University of Vermont, Department of Psychiatry.
- Aiken, L. S., & West, S. G. (1991). *Multiple regression: Testing and interpreting interactions*. Newbury Park, CA: Sage.
- Ang, R. P., & Huan, V. S. (2006). Relationship between academic stress and suicidal ideation: Testing for depression as a mediator using multiple regression. *Child Psychiatry and Human Development*, 37, 133-143.
- Baker, D., & Stevenson, D. L. (1986). Mother's strategies for children's school achievement: Managing the transition to high school. *Sociology of Education*, 59, 155-156.
- Barrera, M., & Baca, L. M. (1990). Recipient reactions to social support: Contributions of enacted support, conflicted support and network orientatio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7(4), 541-551.
- Block, J. H., & Block, J. (1980). The role of ego-control and ego-resiliency in the organization of behavior. In W. A. Collins (Ed.). *Development of cognition, affect, and social relations: The Minnesota symposia on child psychology* (Vol. 13, pp.33-101). Hillsdale, NJ: Erlbaum.
- Block, J., & Kremen, A. M. (1996). IQ and ego-resiliency: Conceptual and empirical connections and separate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2), 349-361.
- Cohen, S., & Hoberman, H. (1983). Positive events and social supports as buffers of life change stres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13, 99-125.
- Cohen, S., & Wills, T. A. (1985). Stress, social support, and the buffering hypo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98, 310-357.
- Compas, B., Orosion, P. G., & Grant, K. E. (1993). Adolescent stress and coping: Implications for psychopathology during adolescence. *Journal of Adolescence*, 16, 331-349.
- Cowen, E., Pedro-Carroll, J., & Alpert-Gillis, L. (1990). Relationships between support and adjustment among children of divorce.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and Allied Disciplines*, 31, 727-735.
- Crijnen, A. M., Achenbach, T. M., & Verhulst, F. C. (1997). Comparisons of problems reported by parents of children in 12 cultures: Total problems, externalizing, and internalizing.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36, 1269-1277.
- DeRosier, M. E., & Kupersmidt, J. B. (1991). Costa Rican children's perceptions of their social networks. *Developmental Psychology*, 27(4), 656-662.
- Dubow, E., & Ulman, D. G. (1989). Assessing social support in elementary school children: The survey of children's social support.

- Journal of Clinical Children Psychology*, 18, 52-64.
- Erikson, E. H. (1963). *Childhood and society* (2nd ed.). New York: Norton.
- Erina L. M, Wendy S., & Seth J. G. (2005). Academic stress, supportive communication, and health. *Communication Education*, 54(4), 365-372.
- Furman, W., & Buhrmester, D. (1985). Children's perceptions of the personal relationships in their social networks. *Developmental Psychology*, 21(6), 1016-1024.
- Hardy, L. (2003). Overburdened, overwhelmed. *American School Board Journal*, 190(4), 18-23.
- Harter, S., Marold, D. B., Whitesell, N. R., & Cobbs, G. (1996). A model of the effects of perceived parent and peer support on adolescent false self behavior. *Child Development*, 67, 360-374.
- Horwitz, A. V., & White, H. R. (1987). Gender role orientation and styles of pathology among adolescent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8(2), 158-70.
- Kaufman, G., & Uhlenberg, P. (1998). Effects of the life course transitions on the quality of relationships between adult children and their parent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0(4), 924-938.
- Keogh, E., Bond, F. W., & Flaxman, P. E. (2007). Improving academic performance and mental health through a stress management intervention: Outcomes and mediators of change. *Behavior Research and Therapy*, 44, 339-357.
- Klohn, E. C. (1996). Conceptual analysis and measurement of the construct of ego resilienc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70(5), 1067-1079.
- Levine, M. (2006). *The price of privilege: How parental pressure and material advantage are creating a generation of disconnected and unhappy kids*. New York: HarperCollins.
- Liu, X., & Tein, J. (2005). Life event, psychopathology, and suicidal behavior in Chinese adolescent.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 86, 195-203.
- Misra, R., Crist, M., & Burant, C. J. (2003). Relationships among life stress, social support, academic stressors, and reactions to Stressors of international students in the United States. *International Journal of Stress Management*, 10(2), 137-157.
- Mitchell, R. E. (1983). Stress, coping and depression among married couple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2, 433-448.
- Quamma, J., & Greenberg, M. (1994). Children's experience of life stress: The role of family social support and social problem-solving skills as protective factors.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3, 295-305.
- Smith, M. H., Beaulieu, L. J., & Seraphine, A. (1995). Social capital, place of residence and college attendance. *Rural Sociology*, 60, 363-380.
- Tennant, C. (2002). Life events, stress, and depression. *Australian and New Zealand Journal of Psychiatry*, 36, 173-182.

- Woods, M. (1972). The unsupervised child of the working mother. *Developmental Psychology*, 6(1), 14-25.
- Yonezawa, S. (2000). Unpacking the black box of taking decision: Critical tales of families navigating the course of placement process. In M, G, Sanders (Eds.), *Schooling students placed at risk: Research policy, practice in the education of poor and minority adolescents*. Mahwah, NJ: Earlbaum.
- Youniss, J., & Smollar, J. (1985). *Parents and*

Peers in Social Development: A Sullivan-Piaget Perspective.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차 원고 접수: 2010. 01. 07

수정 원고 접수: 2010. 02. 04

최종 게재 결정: 2010. 02. 05

Moderating Effects of Ego-Resilience and Social Support in Relations among Academic Achievement Pressure, Perceived Academic Stress and Internalization Problems in Boys and Girls

Seo-Yeon Park Young-Sook Chong
Department of Psychology, Pusan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moderating effects of ego-resilience and social support on the perceived academic stress and internalization problems resulting from academic achievement pressure. 379 elementary school boys and girls of the fifth and sixth grades were asked to complete a variety of questionnaires. On the regression analyses, it showed differential patterns of moderating effects depending on sex. The moderating effects of ego-resilience and social support on the perceived academic stress was found in boys, but not in girls. Also sex difference was found on the internalization problem caused by perceived academic stress, the moder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on internalization problem was found in boys, while the moderating effect of ego-resilience on internalization problem was found in girls. The result suggests that both ego-resilience and social support may play protective factors in boys but only ego-resilience in girls.

Keywords: academic achievement pressure, ego-resilience, social support, academic stress, internalization problems